

## 재밋는 코로나 격리생활

민 수 영(쉐어어스)

퇴사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동생이 타지에서 그간 열심히 일한 것을 아는 우리들은 퇴사를 기념하며 비건 케이크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덕담을 나누고 언니의 깜짝 앨범 선물을 받으며 울고 웃었지요. 그때는 아무도 몰랐죠. 모두 코로나 격리를 함께할 줄은...

이를 뒤였습니다. 언니를 시작으로 다섯 식구 모두 코로나19에 확진되었습니다. 이사 갔던 저도 하루만에 다시 약간의 짐들을 챙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주택 운영사에서 인덕션, 식기, 우리가 쓰던 재료들을 갖다주었습니다. 때마침 이사 가던 친구로부터 미니 냉장고도 선물 받았어요. 이때 부터였어요 확찐자가 되는 것.

휴대폰도 들지 못할 정도로 몸이 너무 아팠습니다. 말하는 것도 힘들고 목은 너무 따가웠어요. 저는 거실에 누워 있는데 새벽이면 각 방에서 돌아가면서 기침 소리가 났습니다. 어떤 약도 듣지 않았고 목에 뿌리는 약만이 목을 잠깐 편안하게 느끼도록 해줬습니다. 서로 대화를 하면서도 목에 칙칙-. 서로 지금만 좀 견디자면서 시간을 보냈고 3~4일이 지나자 먼저 아프기 시작한 순대로 증상이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매 끼니 요리를 챙겨 먹었고 기력이 회복된 사람들은 운동도 했죠. 모두 어느 정도 몸이 좋아졌다 느꼈을 때는 미각을 잃었지만, 식욕은 그대로였기에 디저트를 시켜 먹기도 했습니다.

확진 사실을 부모님께 알리지 않았습니 다. 평소에도 마스크 잘 끼고 몸조심하라는 말을 늘 했기에 걱정을 안겨드리고 싶지 않았습니 다. 그래서 하루에 1~2번씩은 꼭 하던 통화도 바쁘다며 덜하고, 통화를 했을 때 목소리가 이상하다, 감기에 걸리지 않았느냐고 물어볼 때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 PCR을 받으러 갈 때도 회사와는 전화로 일 얘기를 주고받았고 확진 사실을 알렸을 때는 집에서라도 일해줬으면 좋겠다고 했기에 슬픔과 서러움도 북받쳐 오르던 때였습니다. 아픈데 쉬지 못할 때의 서러움, 부모님께도 기댈 수 없는 상황에서 같이 사는 언니 친구 동생은 가족이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너무 아파 누워서 눈물을 흘리며 이 얘기를 할 때 위로해주었습니다. (이로부터 얼마 뒤, 그때 너무 서러웠다며 얘기했더니 회사로써 어쩔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회사는 인간관계가 아니라 회사와 직원 관계임을 깨달았고 그럴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했습니다. 인간 대 인간으로는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각자 겪던 슬픔에는 같이 모여 서로의 상황과 고민을 털어놓으며 위로했습니다. 얼마 전 이때 나눈 얘기들이 큰 힘이 됐었고 지금 보니 그때 말한 것처럼 다 잘되었다- 얘기하는데 얼마나 기쁘던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 혼자 살면서 격리 기간을 보냈다면 어땠을까요. 눈물로 베갯잇을 적시며 7일을 보냈을지 모릅니다. 부족한 글썃씨로 우리 서울 가족인 언니, 친구, 동생들이 제게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전달이 되었을까요. 부모님께도 말 못할 시기에 힘든 시간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요. 비록 미각은 잃었어도 식욕은 충만할 때 같이 먹을 사람이 있어 밥이 얼마나 잘 넘어갔던지요. 사회주택에 입주하지 않았다면 정반대의 상황을 겪었겠지요. 지금도 감사한 날들입니다.

